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6월

선교편지 제 144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 통계청 (PSA)에 의하면 필리핀 인구의 6.01%가 무슬림이며, 그 중 93%가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다나오 인구의 23.4%가 무슬림으로서, 거의 민다나오 섬에 사는 사람 4명중 1명은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의 국교인 가톨릭과 이슬람교와의 긴장이 항상 존재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도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매일 지나가는 익숙한 동선 내에 두 곳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인접한 곳에 무슬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고, 자주 방문하는 가게에서도 무슬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나 쇼핑몰, 시장과 버스 터미널, 그리고 주요 지점마다 군인들의 테러 방지를 위한 검색을 통과할 때마다, 무슬림의 영향권에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마다 우리의 음력과 같이 매년 날짜가 바뀌는 가운데, 필리핀은 금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슬람교의 주요 절기인 라마단 (Ramadan) 기간을 보냈습니다. '더운 달'의 의미를 지닌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무슬림들은 해가 뜰때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금식하고,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리며,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엄격한 나라에서는 물로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곳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기간동안 속죄 기도를 하는 것이 주요 일과중에 하나인데, 라마단이 끝나는 날을 '이드 알 피트르 (Eid-al-Fitr)'라고 하며, 무슬림의 최대 축제일로 보냅니다. 라마단 금식을 끝낸 것을 축하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기부하기도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가장 큰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무슬림과 더불어 가까이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무슬림에 대해서 호기심과 경계심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2001년 9월11일에 미국 뉴욕에서 경험했던 무슬림이 자행한 테러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뉴욕에 거주하면서 9-11테러를 너무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퀴퀴한 냄새를 오랫동안 호흡해야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까닭에 몸은 거리낌이 없이 무슬림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는 무슬림에 대하여 시선을 바로잡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슬림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무슬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를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모스크를 방문하여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미리 밝힌 개신교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정중하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 있는 모스크 중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를 방문하여 그곳의 책임자와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인 'Davao Grand Ecoland Mosque Center'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에 대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다바오 내의 무슬림 최고 권위의 무푸티 (Mufti / 법학자)라고 소개받은 Muhammad Pasigan 외 3명으로부터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Davao Grand Ecoland Mosque Center'는 '평화를 사랑하는 다바오 내의 25만 무슬림'을 위하여 1986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구조물인 첨탑 (Minaret) 은 하루 다섯번 살라 (Salah)라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데, 아랍어로는 마나라 (Manarah) 라고 하며 등대 (Lighthouse)'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무에진 (Muezzine)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직접 육성으로 기도 시간을 알렸으나, 이제는 세월이 변하여 방송장비를 통해서 정시에 스피커로 기도 시간을 알린다고 합니다.

꾸바 (Qubba)라고하는 둥근 모양의 돔 (Dome)은 하늘과 창공을 상징하며, 기도실을 덮고 있습니다. 미흐라브 (Mihrab)는 모스크의 벽에 있는 반원형 틈새 (Semicircular Niche)로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메카의 방향을 끼블라 (Qibla)라고 하는데, 호텔이나 공항에서 무슬림의 기도 처소를 알리는 이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흐라브 (Mihrab) 옆에는 민바르 (Minbar)라고 하는 연단이 있는데, 이곳은 무슬림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이맘 (Imam)이 기도를 인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도실은 무살라 (Musallah) 라고 하는데, 의자가 없이 양탄자가 깔려 있는 넓은 개방된 공간입니다.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했지만, 무슬림이 아닌 까닭에 들어 가지는 못하게 하여 외부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기도실에 들어 갈 수 있고, 여자들은 별도의 문을 통하여 2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정 장소에서 흐르는 물로 손, 입, 콧구멍, 팔, 머리, 그리고 발 순으로 씻는 우두 (Wudu)라는 세정 의식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고, 특별히 금요일 12시 기도회에는 약 500여명의 남자 무슬림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매주 금, 토, 일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어린이와 여자들을 위하여 꾸란 (Quran)을 아랍어나 이곳의 지방어가 아닌 표준어인 따갈로그 (Tagalog)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모스크의 책임자인 이슬람교의 법학자 무푸티 (Mufuti)는 무슬림은 테러가 아닌 평화를 사랑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평소에 궁금했던 많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유일신이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변질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이슬람교의 무슬림만이 유일신이신 알라를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간의 이야기처럼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많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주장을 종종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그들이 믿는 알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 '이사' (Isa,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예수를 탁월한 메시아로 인정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와 신적 체험에 해당하는 수피즘 (Sufism)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는데, 인격적이며 내재하시는 기독교의 성령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를 방문한 까닭은 그곳에 있는 무슬림을 모두 기독교로 개종 시키기 위해서나, 이슬람교의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슬림과 함께 이웃으로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저들에 대하여 너무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피해왔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저들을 좀 더 잘 알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 최대한 경청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무슬림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모스크 내에서 만난 모든 무슬림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밝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심지어 파킹장에서 만난 무슬림 택시 운전 기사도 기도를 마치고 바빠 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할 정도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민다나오는 이슬람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로 인해서 무슬림은 극단적인 무장 단체이며, 테러 집단이며,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관이 기본적으로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다나오의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인정하는가 라는 인식 차이로 나누어진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슬람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다나오의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하는 갈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인 이유 보다는,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유와 더 근본적으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반군 활동을 하는 다수의 무슬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필리핀 무슬림이 인종적으로 일반 필리핀 국민들과 별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소수인 무슬림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종교적과 문화적으로 소수 민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민다나오 내에서 목격할 수 있는 무슬림의 외적인 모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집니다. 이곳의 유명 물품인 진주 또는 보석을 판매하거나, 환전과 같은 큰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속한 무슬림 부유층과, 이와 반면에 해변이나 강변을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의 무슬림 마을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무슬림 빈곤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부유층은 매우 개방적이며, 무슬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지만, 빈곤층은 폐쇄적이며 무슬림에 대한 자부심 보다는 무슬림이라는 집단적인 문화에 갇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불어 무슬림 남자에 비하여 무슬림 여자와 아이들이 종교와 가난으로 인하여 불평등과 편견을 더 많이 겪는 피해자처럼 보여 질 때가 많습니다.

무슬림을 향한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선입관과 막연한 두려움' 입니다. 폐쇄적인 무슬림을 향한 선교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이 곳 무슬림도 예외가 아님을 깊이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곳 무슬림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곳 민다나오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후 4:5)**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